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년 12월 9일 |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12월 12일 1212 군사 쿠테타가 발생했던 그날, 전국 간부들 서울 상경” “윤석열 체포 구속시키고 국민의힘을 해체 투쟁에 전면 나설 것”

-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 민주노총 기자회견 개최

- 2024.12.9(월) 11:00 /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 민주노총은 9일 11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내란주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내란동조·탄핵거부, 국민의힘 해체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앞 100만 촛불과 전국적으로 터져 나온 탄핵 요구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으며, 민주노총은 국민의 요구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민의를 거스른 내란 동조세력 국민의힘에게 해체를 통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면서 “신속하게 탄핵하고 윤석열을 체포해서 그들이 마련했다는 동부구치소 독방에 수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민주노총은 12월 12일 1212 군사 쿠테타가 발생했던 그날, 민주노총의 전국 간부들은 다시 한 번 서울로 상경할 것”이며 “윤석열을 체포 구속시키고 국민의힘을 해체시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내란을 방조한 자, 그 또한 내란범이다! 국민의힘 해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 2024.12.9(월) 11:00

- 장소 :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여의도)
- 주최 : 민주노총

◯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
- 모두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규탄 발언 : 김건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 규탄 발언 :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고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

[붙임]

1. 기자회견문

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건호 부위원장 발언

4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발언

[붙임] 기자회견문

12월 3일, 한밤의 내란난동 이후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으며 즉각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일치된 요구다.
12월 7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확인하는 당연한 절차였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요구와 상식을 외면하고 윤석열탄핵을 거부했다.
국정혼란을 막고 질서있는 퇴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했다.
국정혼란은 위헌적 계엄을 시도한 12월 3일밤 시작되었으며
탄핵은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막기 위한 긴급한 선택이었다.

12월 7일 오전, 윤석열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방안은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12월 7일 저녁, 국민의힘은 일사불란하게 탄핵의결에 불참하여
내란수괴를 보호했다.
12월 8일, 한동훈과 한덕수는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누가 당신들에게 그런 자격과 권한을 주었는가?
내란의 수괴가 내란의 방조자들에게 권한을 넘기고
내란의 방조자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신들의 범죄행위는 무거워지고
국민의 분노와 심판의지는 커져갈 것이다.

12월 7일 저녁, 국회앞 100만 촛불과 전국적으로 터져나온
즉각 탄핵 요구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국민의힘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시간을 벌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12월 7일, 국회앞에서 우리는 확인했다.
8년 만에 다시 가족과 친구의 손을 잡고 거리로 나선 평범한 시민들을,
취업난과 무한경쟁에 내몰리던 대학생과 청년들을,
팬클럽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선 10대들,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에 격려와 지지를 보낸 시민들을.

우리는 이 모든 시민을 기억하고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 요구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구속하라!
내란주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국민무시・탄핵거부, 국회의원 자격없다!
내란동조・탄핵거부, 국민의힘 해체하라!

2024년 12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붙임] 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

우리는 오늘 민의를 거스른 내란 동조세력 국민의힘에게 해체를 통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12월 3일 계엄이 발동되었고 국회의원들은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담을 넘어 국회로 향했습니다. 시민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군대의 투입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 시각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에 동참하지 않았고 오히려 방해했습니다.윤석열의 계엄이 실패로 끝난 후 지난 토요일 윤석열의 탄핵안에도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당은 존재할 이유도 존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지난 주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앞다투어 권력을 분점하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한동훈 대표에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의 계엄에 맞설 용기가 없다면, 민주주의를 지킬 양심이 없다면 최소한 염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감히 권력을 운운하고 국정 수습을 운운한단 말입니까?
당신들은 내란에 동조한 범죄자입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를 판에 권력을 나누겠다고 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을 누가 그들에게 부여했단 말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군 통수권자는 윤석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행정부의 수반은 윤석열입니다. 어떠한 법도, 어떠한 조치도, 어떠한 말도 윤석열의 난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신속하게 탄핵하고 윤석열을 체포해서 그들이 마련했다는 동부구치소 독방에 수감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바로잡고 혼란을 수습하는 길은 윤석열을 멈추어야 비로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탄핵안을 즉각 동참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해산해야 합니다.한동훈, 한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탐할 시간이 아닙니다.우리 사회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민주노총은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유권자의 뜻을 명백히 보여주겠습니다. 유권자들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각인시켜주겠습니다.
12일 1212 군사 쿠테타가 발생했던 그날, 민주노총의 전국 간부들은 다시 한 번 서울로 상경할 것입니다.그래서 윤석열을 체포 구속시키고 국민의힘을 해체시키는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 다시 한 번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시민 여러분 민주노총이 앞장서 길을 열고 싸워나가겠습니다.함께 합시다. 광장에서 거리에서 만들어낸 우리의 사회를 지키고 변화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다시 한 번 나섭시다. 국민의힘 해체를 위해, 윤석열 탄핵과 구속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붙임]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건호 부위원장 발언

우리는 지난 주말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라 국회의원들은 표결에 동참하라.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표결에 불참하고 보이콧을 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아직도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내란 공범인 자들이 아직도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가 어제 기만적인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질서있는 퇴진을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서 헌법에도 없는 권한들을 본인들이 행사한다고 합니다.
반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 또한 내란입니다. 이들 모두가 내란 공범입니다. 이자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위태롭습니다.
국힘은 반헌법 세력입니다. 국힘은 반국가 세력입니다.국힘은 반민중 세력입니다.
반드시 해체시켜야 합니다.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국민들이 국회의 해체에 앞장설 것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국힘을 해체시키고 국헌을 문란한 모든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우리 공무원노조도 영가 파업을 비롯한 모든 투쟁으로 맞설 것입니다.투쟁

[붙임] 4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발언

12월 7일 국민의 힘에 의한 윤석열 탄핵 소추안 부결은 12월 3일 윤석열에 의한 내란 쿠테타에 이은 제2의 쿠테타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금속노조는 정의합니다.
윤석열은 즉각 체포 구속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민의힘은 내란 주범이며 당장 해체되어야 합니다.금속노조는 수고와 보수가 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균점하는 썩어 문드러진 낡은 정치체제, 불안정, 노동과 불평등을 양산하는 낡은 경제체제 박살내고 노동 중심 민주주의 실현하는 투쟁에 총파업으로 나서겠습니다.